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생·학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다

< 토의 참고 자료 >



주최



교육부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목 차

Content

【공통 주제】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

▣ 미래 사회의 변화	4
▣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6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강조해야 할 교육	9
▣ 미래 사회의 수업 및 평가의 변화	11
▣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	13

【초·중학교 분과 주제】

2. 기초 능력에 바탕을 둔 학생의 성장과 발달

▣ 학교생활 행복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	15
▣ 기초학력과 기본 교육	15
▣ 초등학교에서의 놀이와 수업	16
▣ 중학교의 자유학기(학년)제	17

【고등학교 분과 주제】

3.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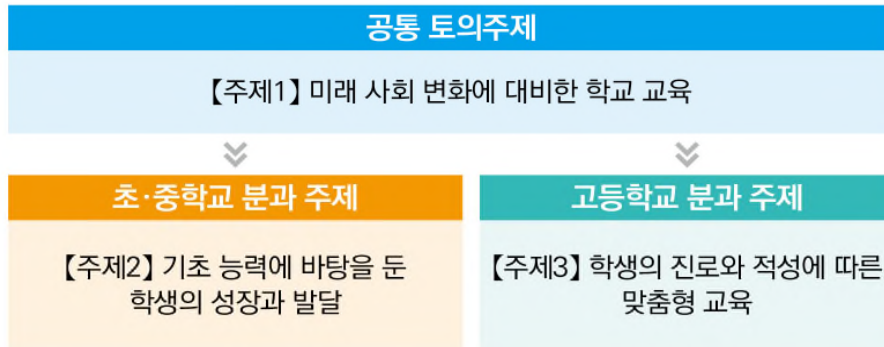
▣ 고교학점제란?	19
▣ 진로교육 및 학업 설계 지도	20
▣ 학생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의 확대	21
▣ 다른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의 학습	22
▣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 및 대학 입학	24

참고 자료	27
-------------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 토의 참고 자료 안내

토의 주제

-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함께 토의하는 ‘공통 주제’와 초·중학교 분과와 고등학교 분과에서 논의하는 ‘분과별 주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공통 주제와 소속된 분과의 토의 주제를 중심으로 토의 참고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 주제별 질문

- 학생 및 학부모님의 토의를 돕기 위해 각각의 토의 주제별로 세부 토의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공통 주제

【주제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여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 토의 질문 ■

- (1) 미래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 사회에는 어떠한 인재가 필요할까요?
- (2) 학생들이 이러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은 무엇일까요?
- (3)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수업과 평가가 강조되어야 할까요?
- (4)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학습 부진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등)이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기 위해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초·중학교 분과 주제

【주제 2】 기초 능력에 바탕을 둔 학생의 성장과 발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토의 질문 ■

- (1)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에서 기초적인 능력을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까요?
- (2) 초등학교에서 ‘놀이’와 ‘공부’는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놀이를 하면서도 공부가 될 수 있을까요?
- (3)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자유학기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분과 주제

【주제 3】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나요?

■ 토의 질문 ■

- (1)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에서 어떠한 진로교육이나 지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나요?
- (2)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서 어떠한 성격의 과목들을 개설해주었으면 하냐요?
- (3) 배우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고등학교나 학교 밖의 다른 기관(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그 과목을 배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타교나 학교 밖에서의 학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 (4)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서의 평가(내신 성적)나 대학입시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요?

📖 사전 의견 조사지 작성

- 콘서트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토의 주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신 후에 사전 의견 조사지를 작성해주세요. 토의 주제별로 제시된 세부적인 **토의 질문** 중에서 **관심 있는 질문을 최소 2개 이상 선택**하여 사전 의견 조사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하시면 모든 토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콘서트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은【주제 1】‘공통 주제’의 토의 질문 중 최소 2개 이상 선택
- 콘서트에 참여하는 분과(초·중학교/고등학교)에 따라 【주제 2】‘초·중학교 분과 주제’ 혹은 【주제 3】‘고등학교 분과 주제’의 토의 질문 중 최소 2개 이상 선택
- 토의 참고 자료는 자신이 선택한 토의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콘서트의 토의 진행 안내

- 실제 콘서트의 토의에서는 토의 주제별로 모든 토의 질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토의하실 때 모든 토의 질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자신이 사건 의견 조사지에 작성한 토의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1】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여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 토의 참고 자료 —

미래 사회의 변화

- 미래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전망하며 대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기관에서는 「10년 후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10년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이슈(쟁점)를 10개로 제시하고 있음. 예컨대, 인구가 줄어듦과 노인 인구비율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저출산·초고령화),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 삶이 불안정한 문제, 직업을 잃게 될까 불안한 문제, 기후나 환경의 문제 등이 논의됨(〈표 1-1〉 참조).

〈표 1-1〉 10년 후 대한민국의 10대 이슈

순위	이슈명	순위	이슈명
1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6	사이버 범죄
2	불평등 문제	7	에너지 및 자원 고갈
3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8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4	고용 불안	9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5	국가 간 환경 영향 증대	10	저상장과 성장전략 전환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외(2015) 보고서의 13쪽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연구(주형미 외, 2016)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2030년의 한국 사회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인구가 줄어듦과, 4차 산업혁명 등의 정보 기술이 발달하며, 불평등 문제나 직업 시장이 달라지는 문제, 환경의 문제, 가치관의 변화 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표 1-2〉 참조).

〈표 1-2〉 2030년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

번호	변화 방향		번호	변화 방향	
1	인구 구조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 -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기(학생) 인구가 감소됨. - 고령 인구의 증가, 외국 인구의 유입 등으로 인구 구성 비율이 변화함. 	4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시대 진입으로 인해 취업률이 낮아짐. -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 - 원격 근무, 계약 근무제 등 직업 형태가 다양화됨. - 다국적 기업, 노동력 이동 등 노동 시장이 세계화됨. - 창의적 노동, 문화 예술의 산업화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군 및 인력 수요가 변화함.

번호	변화 방향		번호	변화 방향	
2	지식 기반 사회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서 사회·문화·정치적 요인과 관련한 네트워크 사회가 구축됨. - 정보와 지식이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됨. 	5	환경 문제 및 자원 부족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을 보호하고 공생하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을 추구함. - 환경 문제 및 자원의 고갈 등 인류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지구촌 공동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확대됨.
3	과학 정보 기술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교류 속도가 증가함. -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의식주의 형태 및 양상이 변화함. -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상호 교류의 대상이 확대됨. 	6	생활 방식, 가치관 등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의 생활 모습과 가치관이 다양화됨. - 건강,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출처: 주형미 외(2016) 보고서의 3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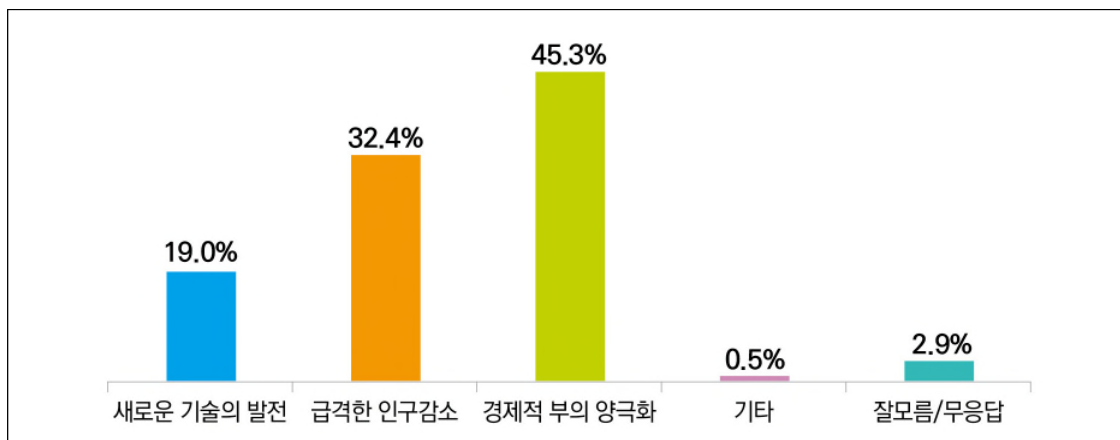
-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 중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더욱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19년에 이루어진 연구(구정화 외, 2019)에 의하면, 교육전문가들은 미래 사회 변화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것, 가치관이 다양해지는 것, 직업이 변화하는 것과 같은 점을 교육 분야에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표 1-3〉 참조).

〈표 1-3〉 미래 사회 변화 양상이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 논의에서 갖는 중요도(교육전문가 의견)

순위	미래 사회 변화 양상	순위	미래 사회 변화 양상
1	인공지능의 발달과 디지털 정보의 증가	7	저출산 현상
2	가치관 다양화 및 가치 대립 양상		고령화 사회
3	생산 구조와 노동 형태(직업)의 변화	8	미디어의 발달과 다양화
4	이주민 증가와 다문화 사회		경제적 불평등 양상 심화
5	환경 생태 문제의 심화	11	지식 정보 중심 사회
	인간 존재 및 삶의 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		남북한 관계의 변화

* 출처: 구정화 외(2019)의 100쪽 표에 제시된 22위 순위에 따른 변화 양상 중 11위까지만 발췌하여 재구성하여 제시함.

-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연구(성열관, 2019)에서는 미래의 한국교육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 변화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경제적인 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경제적 부의 양극화 문제)와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것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음(다음 [그림 1-1] 참조).



[그림 1-1] 미래 한국교육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 변화(국민대상 전화 설문조사)

※ 출처: 성열관(2019)의 원고 110쪽

- 2021년 4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학생 인구)의 감소,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가 다양해지는 현상에 더욱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 변화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표 1-4〉 참조).

〈표 1-4〉 미래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우리 교육에의 미칠 영향 중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항

미래 사회 변화	교육 변화를 위한 도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교육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 (디지털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맞춤형 학습을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수업 기반 마련)
미래 사회 불확실성 증가	⇒ 창의력·변화 대응 역량의 중요성 확대 (불확실성이 강한 미래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길러내는 것 필요)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학생 인구) 감소	⇒ 미래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 (인구가 감소하고 가족 구성원이 바뀌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인 정책 필요)
학습자 성향의 다양화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가 다양해짐)	⇒ 개별 성장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반 필요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개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혁신 필요)

* 출처: 교육부(2021c)의 문서 5-6쪽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함.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 앞서 살펴본 미래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의 학생들이 앞으로 어떠한 인재(사람)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음.
-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연구(양정실 외, 2018)에서는 (1)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갖춘 인간, (2) 문화적 감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인간, (3) 남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 (4)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미래 사회의 인재상으로 제안하였음(〈표 1-5〉 참조).

〈표 1-5〉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인재상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인재상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갖춘 인간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도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인지하고, 자신감을 토대로 변화에 대처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계발해 나가는 인간
문화적 감성과 건강을 향유하는 인간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류 문화를 발전시키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
남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간	현재의 환경과 자원을 뛰어넘어 독창적인 질문을 하고, 새로운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 의식으로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고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 출처: 양정실 외(2018) 보고서의 22쪽

- 또 다른 연구(홍원표 외, 2020)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 문화를 누리고 발전시키는 사람, 나눔과 배려와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람 등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으로 제시하였음(〈표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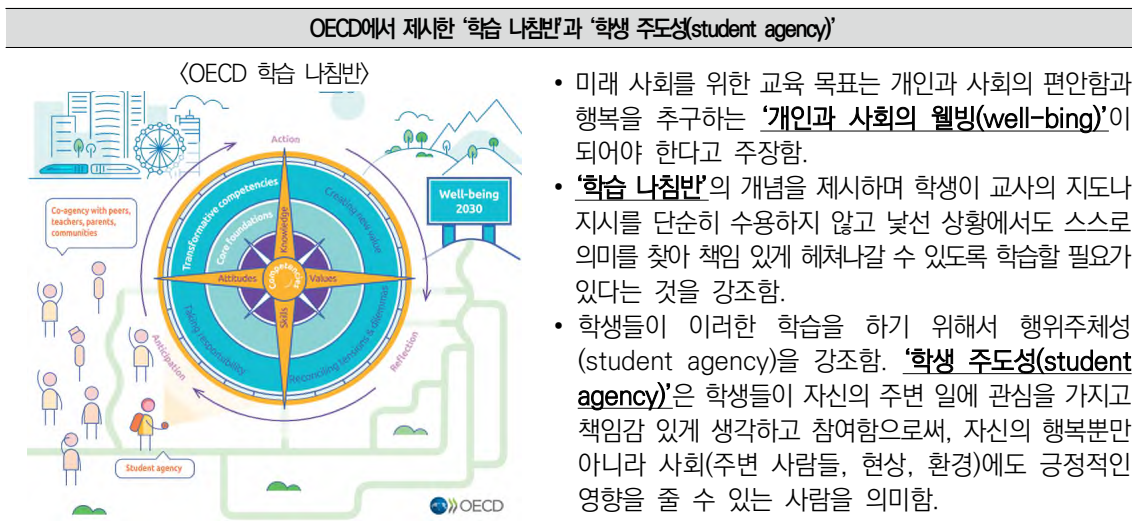
〈표 1-6〉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인재상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인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 새로운 발상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 • 다양한 인류 문화를 누리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나눔과 배려,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 인류 문명과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

* 출처: 홍원표 외(2020)의 보고서 15쪽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해 논의함. 현재의 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2030년의 사회를 고려할 때, 학교 교육은 개인 및 사회가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러한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가 지도해주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상황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며 책임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함.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함(표 1-7) 참조).

〈표 1-7〉 OECD의 교육 목표 및 학생의 행위 주체성



* 출처: OECD 교육 2030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과 최수진 외(2019) 보고서(42-43쪽)를 참고하여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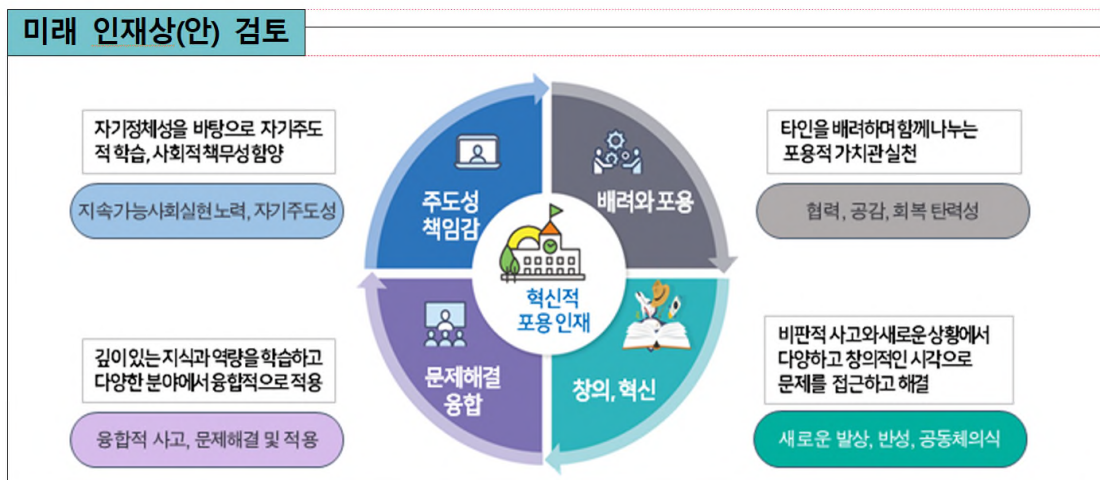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주어야 하는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실행 중인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교양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키울 것을 강조함(표 1-8) 참조).

〈표 1-8〉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과 역량(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 목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상	핵심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 출처: 교육부(2015)의 문서 1~2쪽

- 교육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포용 인재’라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자기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창의적인 시각을 가진 인간,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인간을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강조함. 한편, 이러한 미래 인재상은 정책 연구 및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보완해나갈 것을 발표하였음(그림 1-2] 참조).



〔그림 1-2〕 교육부의 ‘미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재상(안)

※ 출처: 교육부(2021c)의 문서 11~12쪽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강조해야 할 교육

-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인재상을 고려하여, 현재 강조해야 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짐. 먼저, 2020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전통적인 교육 체제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 모두에게 열려 있는 포용적인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학습, 학생 주도적인 평생 학습을 강조함(〈표 1-9〉 참조).

〈표 1-9〉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미래 사회 대비 교육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강조한 교육	
개별화된 맞춤 속도 학습	개별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학습과 각 학습자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는 유연한 학습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학습	모두에게 접근의 기회가 열려 있으며 포용적인 학습
문제 기반 협력적 학습	동료 협력 및 직업의 미래를 반영하는 프로젝트 및 문제 중심 학습
학생 주도 평생 학습	모두가 지속적으로 기존의 역량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 출처: 홍원표 외(2020)의 보고서 49쪽(2020 세계경제포럼 자료집의 11~13쪽 내용을 재구성한 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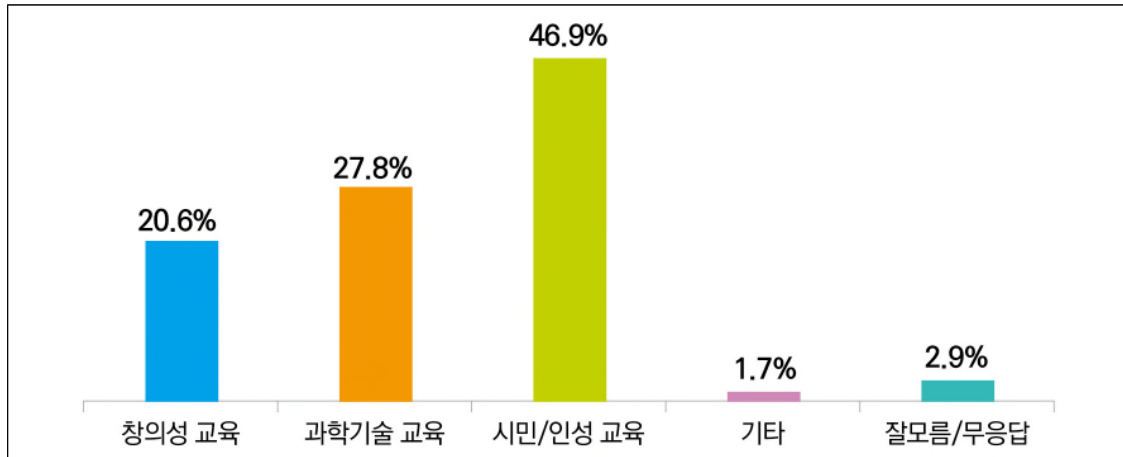
- 국내에서도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강조해야 할 교육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됨. 예컨대, 〈표 1-10〉에서와 같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행복을 강조하는 교육, 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을 키워주는 교육, 창의·융합 사고를 기르는 교육, 민주시민 교육, 지구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교육 등을 강조함.

〈표 1-10〉 미래 사회 대비 교육에 대한 의견

연구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교육
홍원표 외(2020)의 미래 교육의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중시하는 교육 - 기초 소양과 학업능력의 바탕 위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교육 - 공정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 인류 문명과 지구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교육 - 인간적 가치와 기술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양정실 외(2019)의 교육의 지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키워주는 교육 - 창의융합 사고를 기르는 교육 - 지능정보사회 역량을 기르는 교육 - 민주시민 교육 - 배움의 과정이 즐거운 교육
교육부(2016)의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 개인의 학습능 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기르는 교육 -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교육

* 출처: 홍원표 외(2020) 보고서의 220쪽, 양정실 외(2019)의 보고서 26쪽, 교육부(2016)의 문서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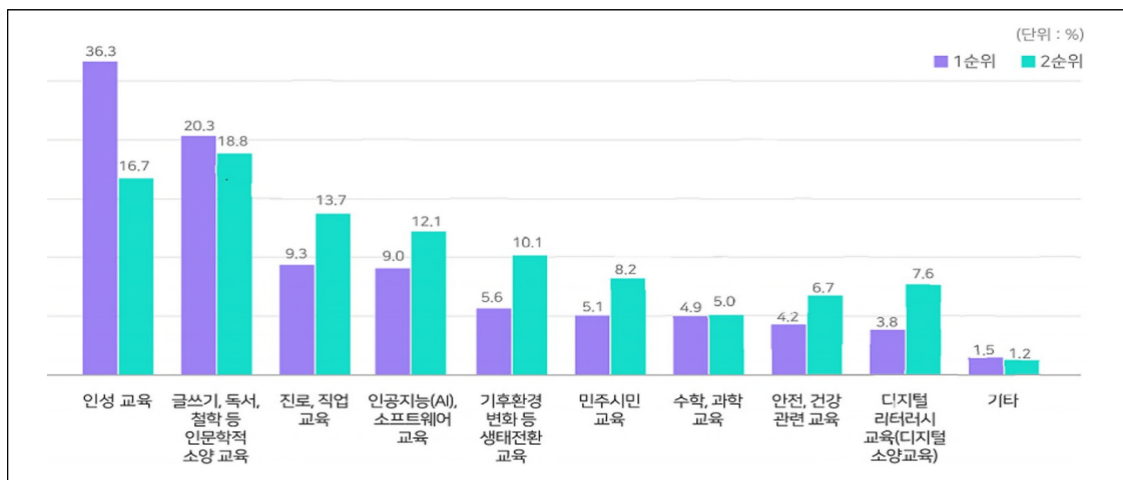
-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 미래 사회를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해 ‘시민/인성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과학기술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그 뒤를 이었음. 이때, ‘시민/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학부모와 50대의 응답자에서 많이 나왔으며, ‘과학기술 교육’이라는 응답은 학생과 10~30대 사람들의 응답 의견이 많았음([그림 1-3] 참조).



[그림 1-3]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국민대상 전화 설문조사)

※ 출처: 성영관(2019)의 원고 110쪽

- 최근 국가교육회의(2021)에서 실시한 전 국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교육에 대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글쓰기, 독서, 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진로, 직업 교육’,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 ‘기후 환경 변화 등 생태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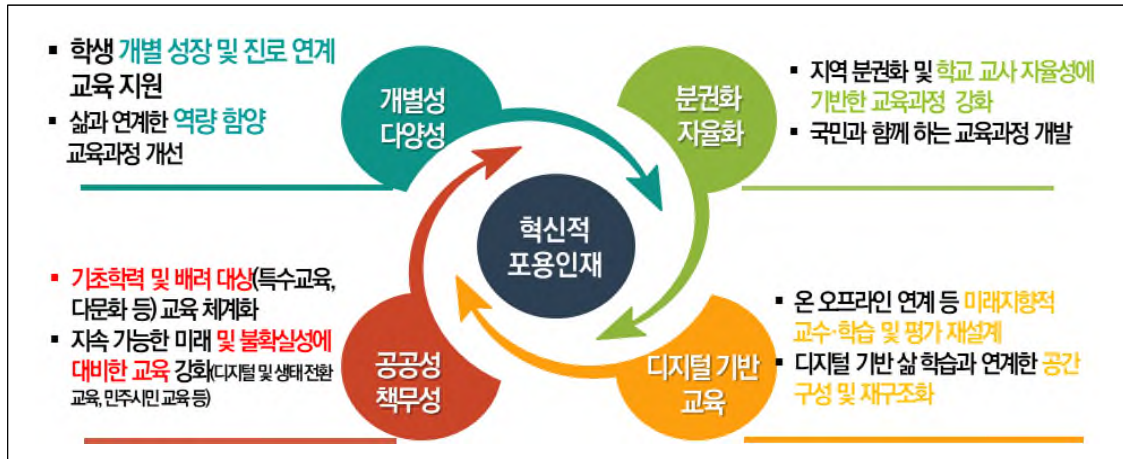


[그림 1-4]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출처: 국가교육회의(2021)의 자료 20쪽

- 교육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에서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교육 비전으로 삼고, 개별 학생의

성장과 진로를 고려한 교육, 삶과 연계한 역량 함양 교육,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장애학생 및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사회적 책임을 위한 환경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 등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수업과 평가를 체계화하는 등의 변화를 강조함(그림 1-5] 참조). 이러한 교육 변화의 방향은 국민과의 논의를 통해 더욱 수정·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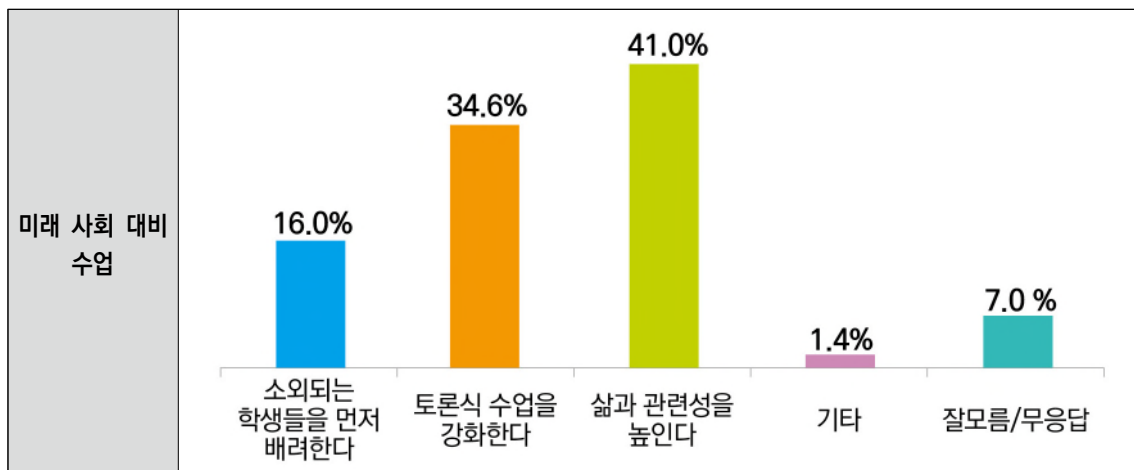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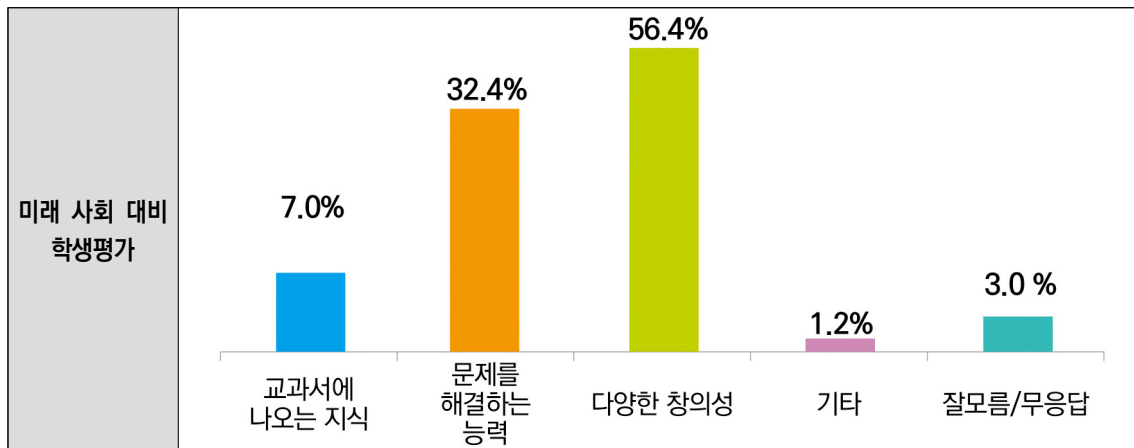
[그림 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변화의 방향

※ 출처: 교육부(2021c)의 문서 10쪽

미래 사회의 수업 및 평가의 변화

- 미래 교육의 방향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라 수업과 평가 방법도 달라질 필요가 있음. 성열관(2019)의 연구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업에 대해서는 ‘삶과의 관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토론식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외되는 학생들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음. 미래 사회에 대비한 평가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창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순위로 나타났음(그림 1-6] 참조).





[그림 1-6] 미래 사회에 대비 수업 및 학생 평가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국민대상 전화 설문조사)

※ 출처: 성열관(2019)의 원고 112-113쪽

- 구정화 외(2019)의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미래 수업의 변화에 대해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수업을 강화한다'에 가장 많이 찬성하였으며, 학부모들은 '교과서 속 지식을 강조하기보다 실생활 속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강화한다'에 가장 많이 찬성하였음. 미래 평가의 변화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경우 '학업 성취를 점수로 알려주기보다는 학습의 과정 중 피드백을 위해 평가한다'에 가장 많이 찬성하였던 반면, 학부모의 경우에는 '정해진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에 대해 가장 많이 찬성하였음(〈표 1-11〉 참조).

〈표 1-11〉 미래 사회에 대비한 수업 변화와 평가 변화

구분	미래교육의 수업 및 평가의 변화	학생의 찬성 비율	학부모의 찬성 비율
수업의 변화	교사가 설명하는 방식의 수업보다 학생의 참여나 활동이 되는 수업을 강화한다.	57.1%	77.6%
	학교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의 수업보다 모둠을 이루어 함께 해결하거나 완성하는 방식의 수업을 강화한다.	55.1%	65.7%
	교과서 속 지식을 강조하기보다 실생활 속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강화한다.	68.1%	78.3%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수업을 강화한다.	75.3%	72.7%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통합해서 가르치는 수업을 강화한다.	57.1%	68.0%
평가의 변화	학업 성취를 점수로 알려주기보다는 학습의 과정 중 피드백을 위해 평가한다.	70.8%	71.0%
	정해진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66.0%	73.7%
	평가 시간이 수업 시간과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과정 중에 평가한다.	53.1%	68.8%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평가 문항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평가한다.	61.3%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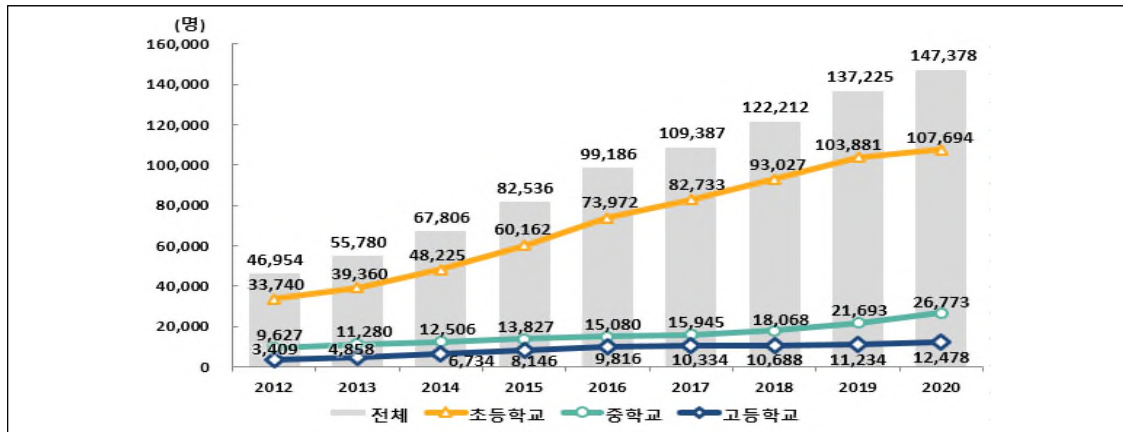
* 출처: 구정화 외(2019)의 보고서(241-267쪽) 중 '매우 찬성한다'와 '찬성한다'의 긍정 응답 비율만 합한 후 요약하여 제시함

- 교육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실생활의 맥락과 소재를 활용한 교육, 실생활 맥락을 고려하여 질문을 제시하는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한편, 미래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수업 방법과 서·논술형의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함(교육부, 2021c, 17-18쪽). 이러한 수업 및 평가 방안은 국민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방안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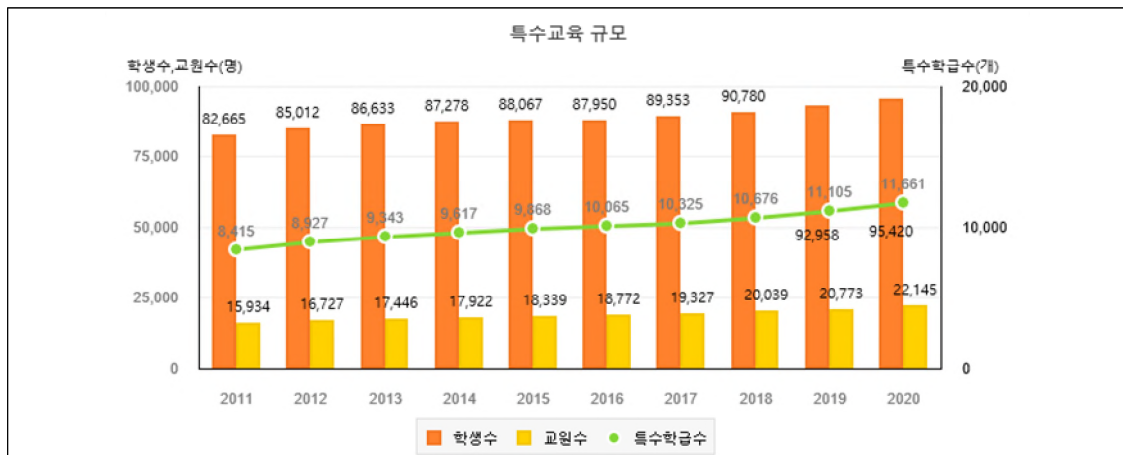
- 2020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의 2.8%(147,378명)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모든 학생이 문화적인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학교에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그림 1-7] 참조).



[그림 1-7] 다문화 학생 현황

※ 출처: 교육부(2020)의 문서 5쪽

- 최근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장애 아동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를 빨리 발견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차별 없이 치료 및 지원 등을 해주는 것, 장애 아동이 일반학생과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권고하였음(관계부처 합동, 2021: 1).



[그림 1-8]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의 규모

※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4, 검색일: 2021. 7. 26.)

- 한편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도 배려할 필요가 강조됨.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는 인지적인 요인, 심리·정서적인 요인, 행동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작용함. 최근에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을 빨리 발견하고,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김태은 외, 2020: 13).
- 미래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적 배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에서는 학습 부진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배려와 포용을 강조함. 예컨대,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애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를 분석하여 학생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수업에서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수업 유의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한편, 다문화 가족의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음(교육부, 2021c: 14-15).
- 학업이 어려운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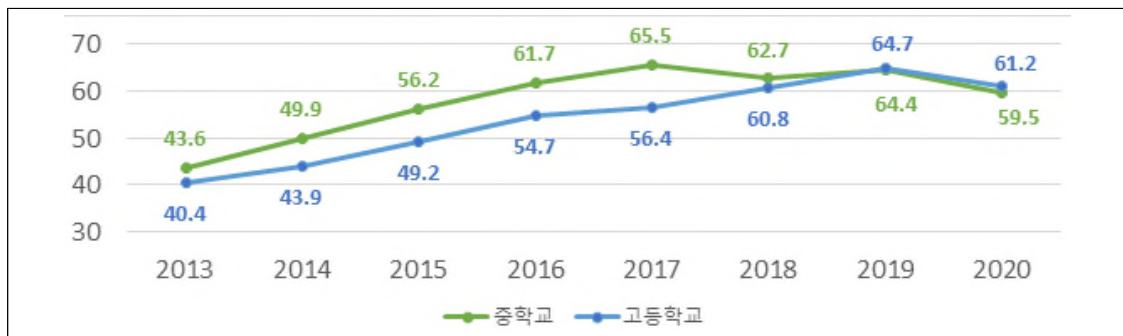
【주제 2】 기초 능력에 바탕을 둔 학생의 성장과 발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토의 참고 자료 —

☞ 학교생활 행복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 결과, 2013년 이후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 정도가 높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다만, 2020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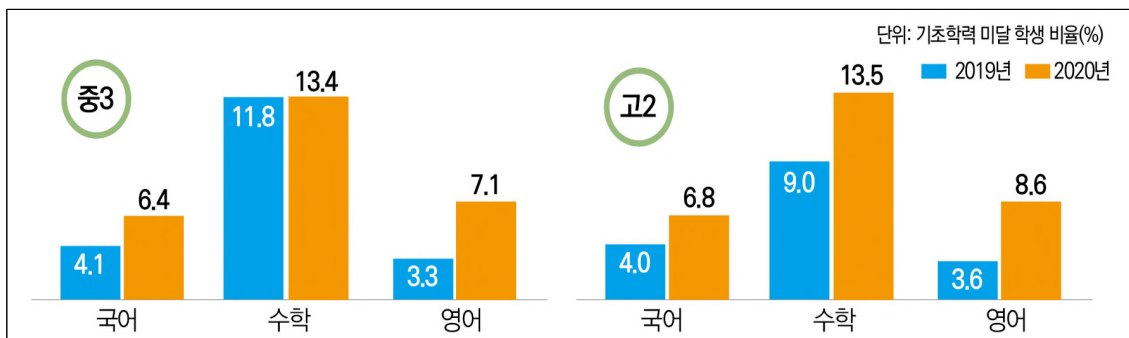


[그림 2-1] 학교생활 행복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

※ 출처: 교육부(2021b)의 문서 5쪽

☞ 기초학력과 기본 교육

-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은 중요함.
-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그 이전의 해보다 ‘보통 학력 이상’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그림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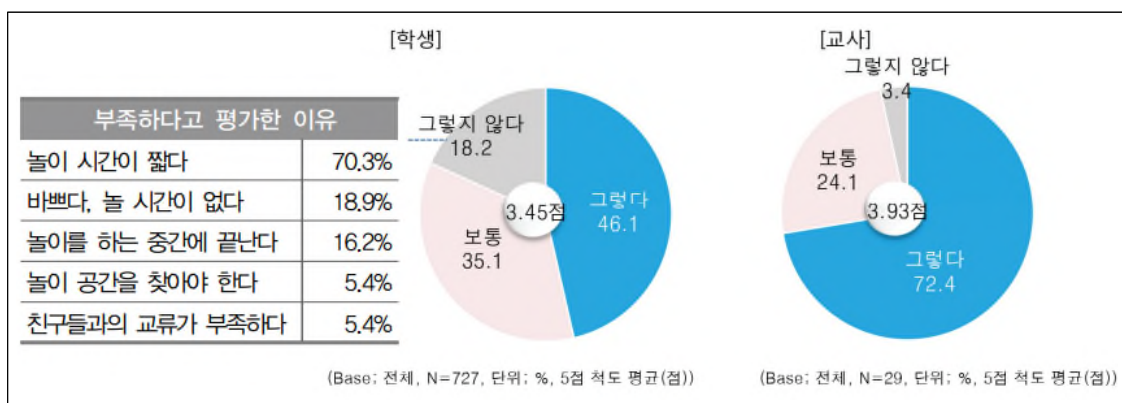
[그림 2-2]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

※ 출처: 교육부(2021a)의 문서 3쪽

-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코로나 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온라인 원격 수업이 크게 확대된 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0년 7~8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교사들이(약 79%)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학생 간에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하였으며, 2020년 10~11월에 이루어진 학부모 대상 설문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가(약 62.8%)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학생 간에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남(교육부, 2021a: 1).
- 교육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기’ 능력과 함께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의 기초적인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함.

초등학교에서의 놀이와 수업

-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상당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초등학교 시기에 누려야 할 놀 기회가 자연스럽게 차단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놀이를 할 시간이 짧거나 놀이 공간을 찾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들이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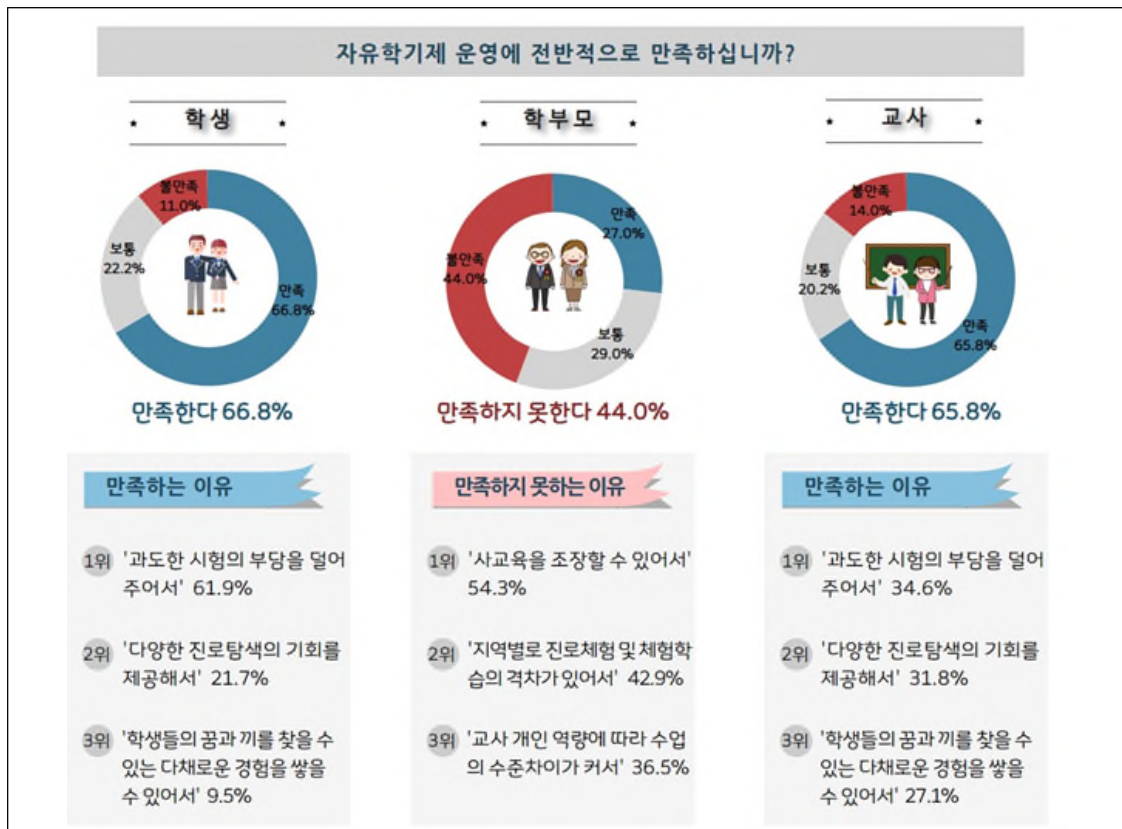
[그림 2-3] 놀이 활동 시간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 출처: 신호재 외(2017)의 보고서 12쪽

- 따라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초등학교들이 다양한 수준의 놀이 활동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신호재 외, 2017: 3).
-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놀이 활동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한 학부모의 64.2%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구정화 외, 2019: 259).
- 교육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에서도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초등학교 연령을 고려하여 놀이와 공부를 연계한 학습에 대해 강조하면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중학교의 자유학기(학년)제

- 자유학기제는 2013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었음. 2018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2개 학기로 확대해 운영하는 자유학년제가 도입됨.
- 자유학기(학년)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상대 평가에 따른 성적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피드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며,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함(17개 시도교육청, 2020: 1).
-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거나 토론 중심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단시간 많은 지식 습득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었음. 또한 학생들은 자유학기제가 진로 개발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학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음(하정희 외, 2018: 157-158).
- 2018년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한 '자유학기제 운영의 만족도 및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에서도 학생과 교사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학부모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그림 2-4] 참조).



[그림 2-4] 자유학기제 만족도에 대한 의견

※ 출처: 서울특별시의회(2018)의 문서 12쪽

- 자유학기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특히 앞으로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 자신의 적성·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등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에도 변화가 필요함.
- 이에 따라 교육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2021년 4월)」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자유학기 활동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의 전환 준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주제 3】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학 생]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나요?

[학부모]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할까요?

— 토의 참고 자료 —

고교학점제란?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서 요구하는 기준(출석 및 학업성취)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임 ([그림 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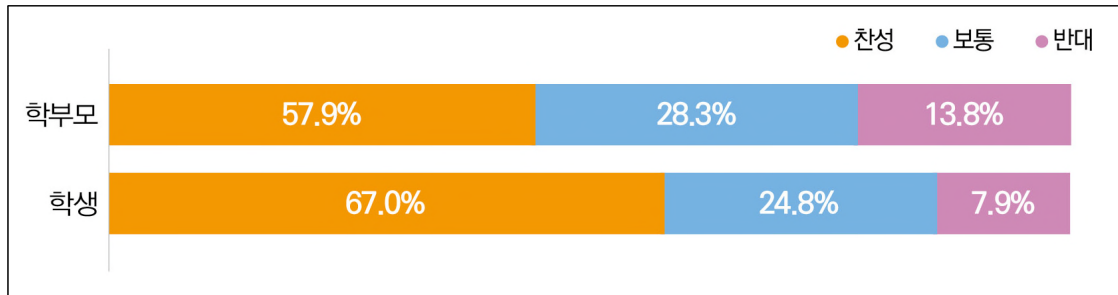


[그림 3-1] 고교학점제형 학사 제도 운영 체계

※ 출처: 교육부(2021d)의 문서 9쪽

- 이러한 고교학점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게 강조됨(교육부, 2021d: 9).
 - (1)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우길 원하는 과목을 조사하여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통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
 - (2)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잘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3년간의 학업 계획을 세운 다음, 책임 있게 계획한 대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나 학업 설계 지도(과목 선택 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
 - (3) 학생들이 과목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목 이수 기준(출석률, 학업성취율 등)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2018년부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2025년에 본격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임.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의 경우 고교학점제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이 67.0%로 나타났으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57.9%만 찬성하고 있어 학부모보다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더욱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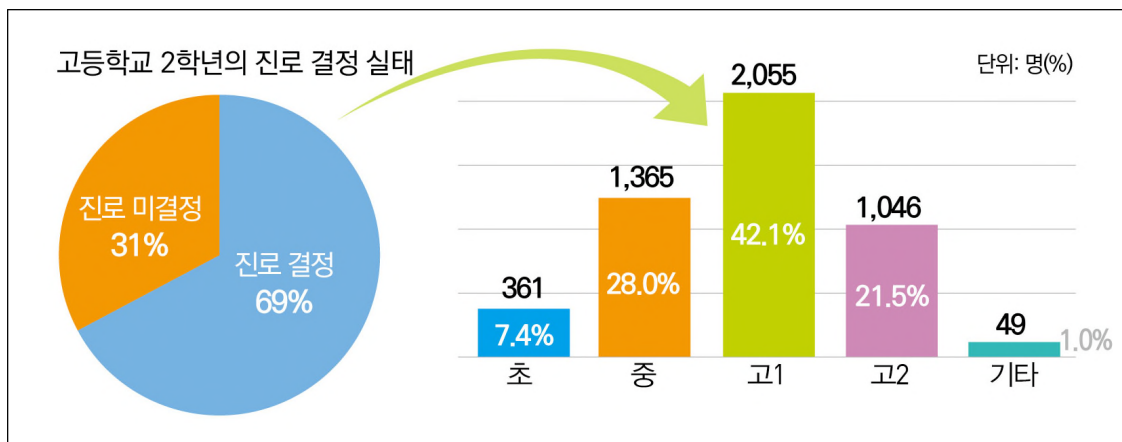


[그림 3-2]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 출처: 구정화 외(2019)의 보고서 237쪽과 255쪽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함.

진로교육 및 학업 설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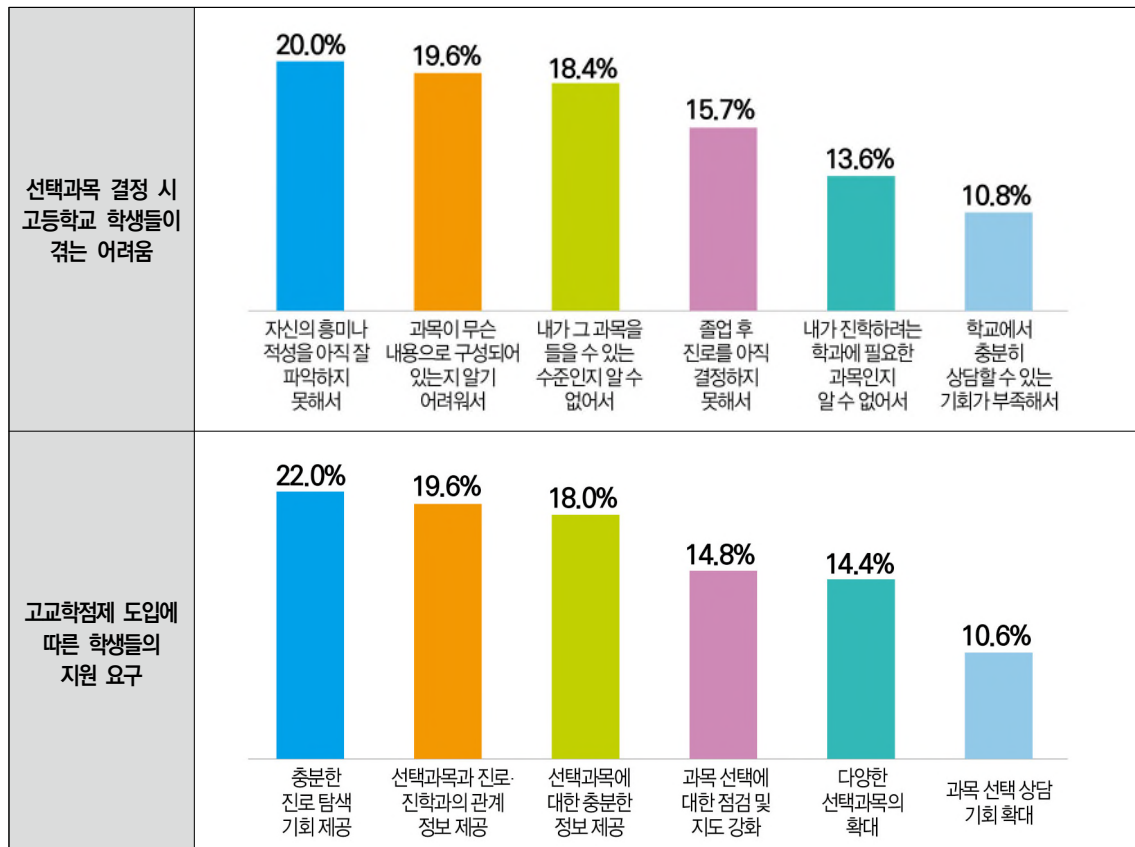
-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기 때문에, 진로교육과 학업 설계 지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10명 중 7명 정도가 진로를 결정하였는데,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1~2학년의 학교생활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3-3] 참조).



[그림 3-3]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결정 비율 및 진로 결정 시기

※ 출처: 이주연 외(2020) 보고서의 124쪽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함

-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잘 모르거나 그 과목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택과목과 진로·진학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 과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음([그림 3-4] 참조).



[그림 3-4] 선택과목 결정 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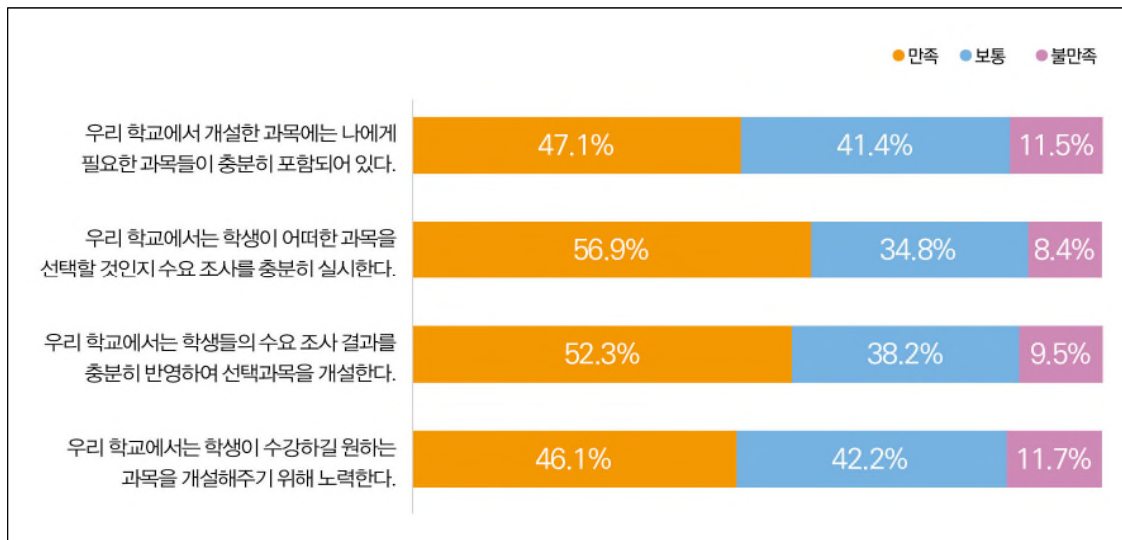
※ 출처: 이주연 외(2020)의 보고서 154쪽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함.

-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에서 고등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에 따라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집중적으로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를 구체화하는 방안과 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교육부, 2021d: 21).

☞ **학생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의 확대**

-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학교에서 개설하는 선택과목에 대하여 학생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나 절반 이하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학생의 비율(56.9%)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의 개설 과목에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47.1%)’와 ‘학교에서 학생이 수강하길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주기 위해 노력한다(46.1%)’에 동의한 학생은 절반 이하의 학생들로 나타나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음([그림 3-5] 참조).



[그림 3-5] 선택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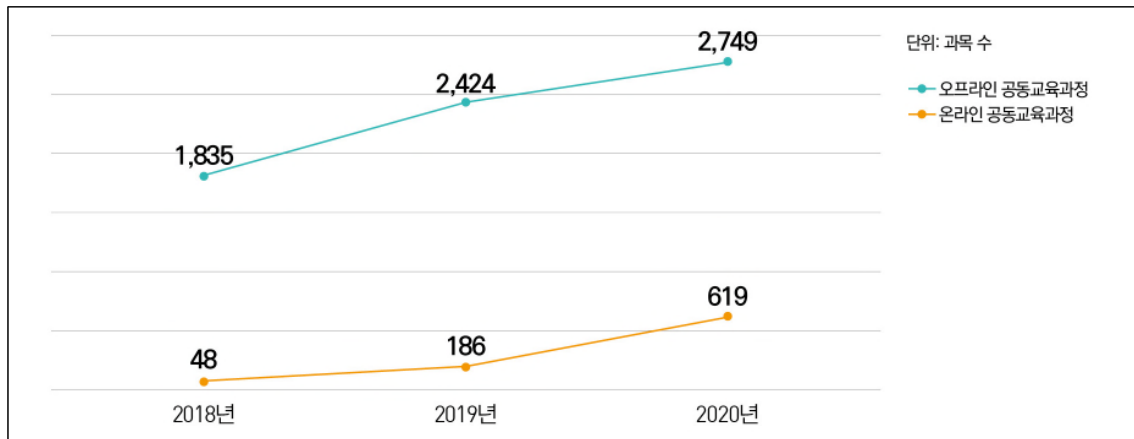
※ 출처: 이주연 외(2020)의 보고서 162-163쪽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과목이 개설되기를 희망하는지 수요 조사를 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한편,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서 학생들이 원하지만 학교에서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과목의 경우 학교 밖의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곧,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싶으나 이 과목을 맡아줄 교사가 없을 경우, 교원 자격이 없더라도 박사급의 전문가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이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교육부, 2021d: 22).

다른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의 학습

-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이 강조됨.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공동으로 개설하고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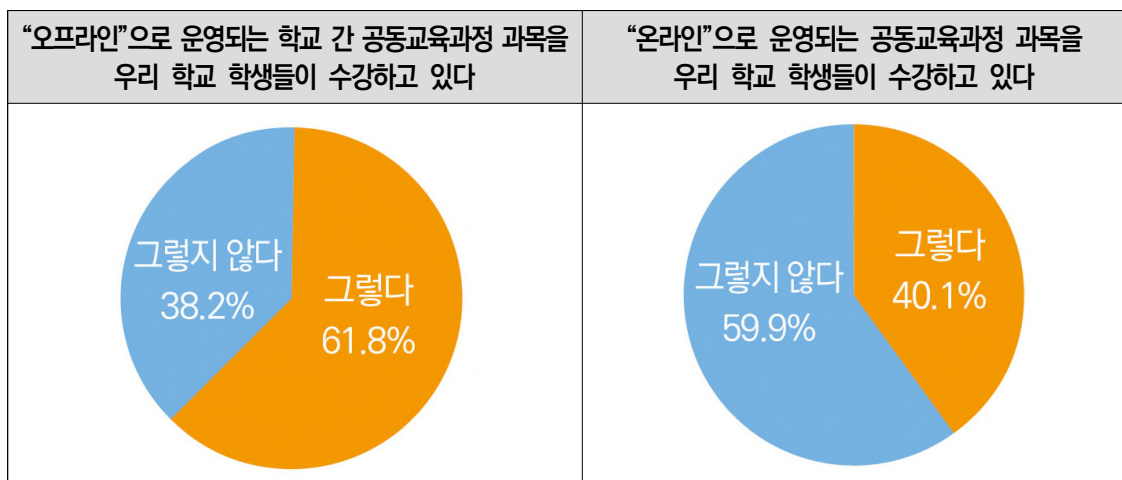
- **학교 밖 교육:**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의 기관(대학, 평생교육 기관 등)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방식
- 이와 같이 학교 간에 협력해서 선택 과목을 개설하거나 학교 밖 다른 기관의 교육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많은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논의되고 있음.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두 유형의 공동교육과정 모두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3-6] 참조).



[그림 3-6]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학생 선택 과목 수의 증가

※ 출처: 이주연 외(2021발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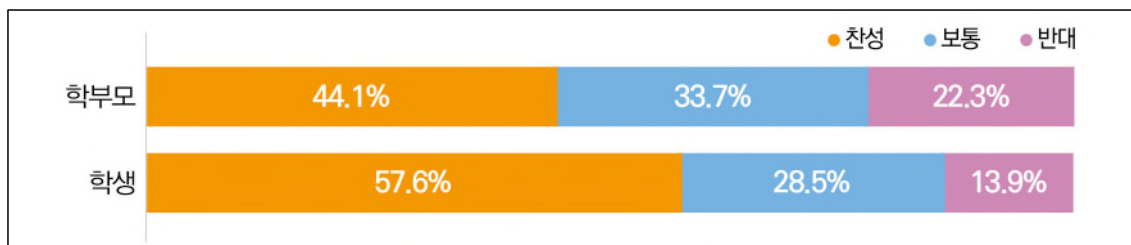
-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61.8%,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도 40% 정도로 나타남([그림 3-7] 참조).



[그림 3-7]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비율(고등학교 교사 설문조사)

※ 출처: 이주연 외(2020) 보고서의 159표 내용 일부를 그래프로 제시함

- 이와 같이 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개설해줄 수 없거나 그 과목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이 소수일 경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절반 정도의 학부모와 학생이 찬성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학부모(44.1%)보다 학생(57.6%)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그림 3-8] 참조).



[그림 3-8]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 출처: 구정화 외(2020)의 보고서 257~258쪽의 내용을 그래프로 제시함.

- 한편,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대학이나 지역사회 학습장 등 학교 밖의 기관에서 배우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직업과 관련된 특수 분야의 과목은 학교 밖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이 다양한 학습 경험이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교육부에서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에서도 인근 학교들이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표 3-1〉 참조). 이러한 방안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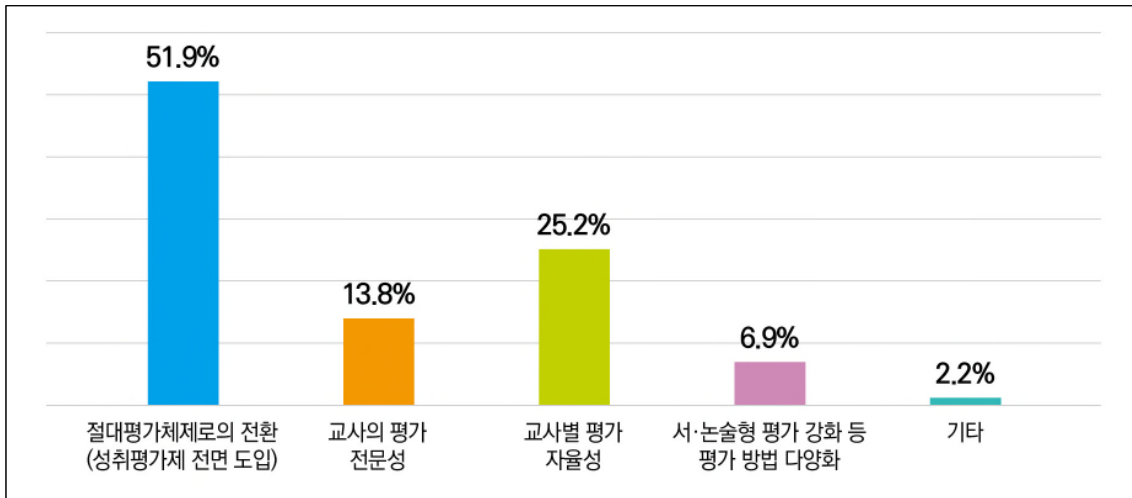
〈표 3-1〉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의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내용(안)

구분	교육과정 개정 방안(안)
공동교육과정	- 학교 단위에서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의 경우, 인근 고교와 함께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교 밖 교육	- 학생의 다양한 학업 수요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인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 -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확대(‘20. 24개 지구→ ‘21. 34개 지구)

* 출처: 교육부(2021c) 문서의 22쪽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 및 대학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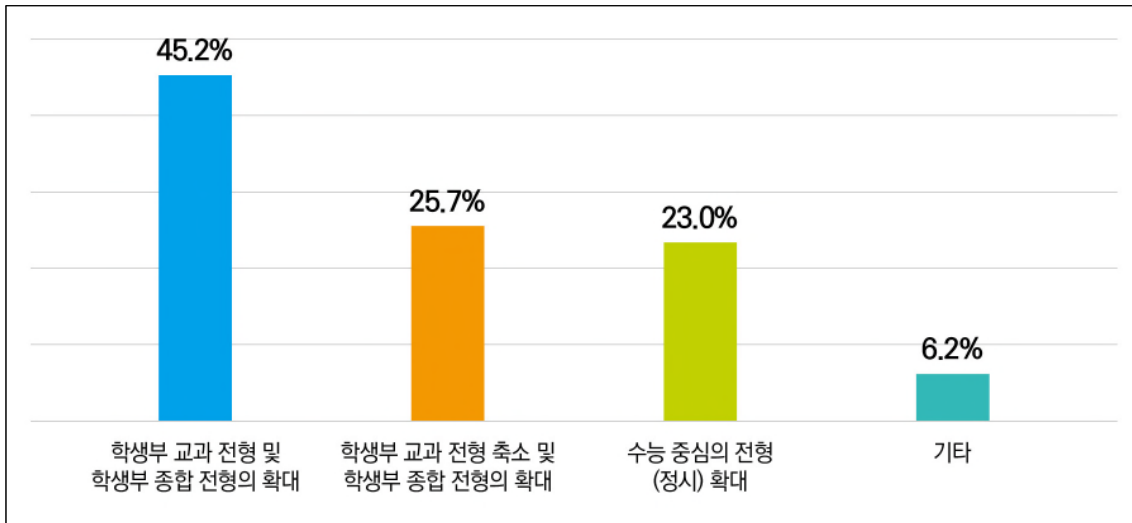
- 고교학점제가 학교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 체제와 대학 입시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함.
- 먼저, 고교학점제의 학생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성취평가제 전면 도입)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교사별로 평가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음 ([그림 3-9] 참조).



[그림 3-9]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해 학생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교사 및 전문가 등 설문조사)

※ 출처: 김진숙 외(2020)의 보고서 63-64쪽 내용을 그래프로 제시함.

-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세우는 상대평가가 강조될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내신 성적에 유리한지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는 각 과목별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할 경우 ‘성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역할과 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설문 조사 결과 교육관계자들의 경우 수능의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개선해서 대학에 입학할 때 최소한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자격고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하였음. 아울러 대학 입학에서 학생이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여 배웠으며, 그 과목에서 어떠한 성적을 받았는지를 토대로 학생의 전공 역량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46.9%)이 가장 많았음. 한편,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대학 입학에서 학생 선발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45.2%)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축소하되 학생부 종합 전형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25.7%)이 그다음으로 나타남([그림 3-10] 참조).



[그림 3-10] 대입에서의 학생선발 방법 개선 방향(교사 및 전문가 등 설문조사)

※ 출처: 김진숙 외(2020) 보고서의 69쪽 내용을 그래프로 제시함.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년 2월)」에 따르면, 학생의 성적을 서열화하기보다는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를 강조하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에 적용하여 절대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리고 절대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표 3-2>와 같이 선택 과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원점수, 과목 평균 점수, 성취도 등급(수강자수), 성취도 등급별로 학생 비율을 제공하여 ‘성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함.

<표 3-2>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예시

과목명	학점 수	원점수/과목 평균	성취도(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
정치와 법	4	85 / 64.4	B (55)	A (7.3) B (30.9) C (12.7) D (30.9) E (18.2)

* 출처: 교육부(2021d) 자료의 19쪽

-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내신 평가와 대입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1).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 - 취약전 아동을 중심으로 - (2021. 5. 12.).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육부(2016).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교육부 보도자료(2016. 12)
- 교육부(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2020. 8. 28.).
- 교육부(2021a).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2021. 6.).
- 교육부(2021b).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2021. 7. 29.).
- 교육부(2021c).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교육부 보도자료(2021. 4).
- 교육부(2021d).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보도자료(2021. 2. 16).
- 구정화, 박영석, 박새롬, 백선영(2019). 미래지향적 학교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현장 및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분석. 교육부 정책연구.
- 국가교육회의(2021). 국민참여 교육과정 개정 토론 참고 자료.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s://www.eduforum.or.kr/homepage/participation/results/41>)
- 김유리, 신혜진, 배현순, 권순정, 심유나(2020).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방안 연구-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김진숙 외 25명(2021).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 김태은, 오상철, 노원경, 강옥려, 이민선, 김호영(2020). 느린 학습자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2015). 미래 이슈 보고서: 10년 후 대한민국. 지식공감.
- 17개 시도교육청(2020). 2020년 자유학년 및 연계학기 운영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의회(2018). 자유학기제 운영의 만족도 및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주)타임리서치.
- 성열관(2019).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한국교육의 방향과 과제: 미래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결과와 시사점. 2019 국가교육과정포럼 미래교육포럼(5차) 자료집. 교육부.
- 신호재, 권점례, 최성희, 이재진(2017). 초·중학생들의 바람직한 놀이 활동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
- 양정실, 서영석, 강경숙, 정광훈, 김경애(2018). 미래 유·초·중등교육의 방향과 국가 교육 정책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
- 이주연, 이광우, 권점례, 백경선, 배화순, 전호재(2021).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공동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2021년 12월 발간 예정).
- 이주연, 이광우, 진경애, 이미숙, 이민형, 장현진(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지도 방안 탐색: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 주형미, 최정순, 유창완, 김종윤, 임희준, 주미경(2016). 미래 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 평가 비전 연구(I): 초·중등학교 교과 교육의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 최수진, 김은영, 김혜진, 박균열, 방상완, 이상은(2019).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하정희, 김명희, 조영아, & 김상희(2018).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42, 139-162.
- 홍원표, 김종훈, 김한성, 류창기, 이광우, 임유나(2020). 미래형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교육부 수탁보고서.
- OECD 교육 2030 홈페이지. <http://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